

Global Market Report

저유가시대 美 세일산업 대응현황



목 차

요 약 / 1

I. 저유가 도래배경 및 향후전망 / 2

II. 미국 셰일산업 저유가 대응현황 / 5

- 5 | 1.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
- 7 | 2. 미국 셰일산업 개발동향
- 8 | 3. 글로벌 정유업계 저유가 대응전략

III. 미국 주요산업별 영향 / 9

- 9 | 1. 석유화학산업
- 10 | 2. 전력산업
- 10 | 3. 철강산업
- 11 | 4. 제조업
- 11 | 5. 해양플랜트
- 12 | 6. 자동차산업

IV. 시사점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/ 13

요 약

□ 저유가 시대의 도래

- '15년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'14년 하반기 이후 약 50% 급락
- 원유 생산기술 향상, OPEC 증산, 이란 핵협상 타결 등으로 인한 공급증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주요원인

□ 미국 셰일산업 저유가 대응현황

- (미 정부) 非전통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
- (미 셰일업계) 기술혁신, 비용절감을 통해 생산성 증가시키는 제 2의 셰일혁명 시도

□ 미국 주요산업별 영향

- (석유화학) 셰일가스 설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 화학, 가스 발전 등 관련 플랜트 시장 전망 밝음
- (전력) 저렴한 천연가스를 활용해 가스·신재생 중심의 전력발전으로 전환
- (철강) 유가하락으로 채굴, 운송 등 업스트림(Upstream) 및 미드스트림(Midstream)분야 기자재 수요 감소
- (제조업) 생산비용 하락으로 제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
- (해양플랜트) 저유가로 인한 타격으로 추가 발주 보류 및 축소
- (자동차) 트럭·SUV 시장 급성장, 압축천연가스(CNG) 자동차 보급 확대

□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

- 유가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증가로 자동차, 의류 등 소비재 시장 유망하고 제조업 호황으로 부품·소재 수출기회 확대 기대
- 세계 천연가스 및 LPG 수요증가로 LNG선과 LPG선 발주 증가 전망
- 반면, 석유채굴, 운송 등 기자재 수요 감소 및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우려

1 저유가 도래배경 및 향후전망

□ '15년 유가하락 지속, '14년 하반기 이후 약 50% 급락

- 텍사스 중질유(WTI) 가격, '15년 상반기 평균 배럴당 53.3달러로 전년 대비 47.1% 하락
 - 올해 1~11월 평균 배럴당 49.84달러로 전년 대비 48.1% 하락
- 두바이유 현물가격, 11월 평균 배럴당 41.6달러로 최저치 기록
 - '09년 4월(50달러) 이래 5년여 만에 최저치로 8월 이후 40달러대 유지



- 두바이유, 작년 11월부터 40달러 이하로 떨어진 이후 '16년 1월 7일 27.96달러를 기록하며 '04년 4월 이후 12년 만에 30달러선 붕괴
 - * 두바이유 일일가격(\$/Bbl): 39.9('15.11.30) → 27.96('16.1.7)
 - * Brent 일일가격(\$/Bbl): 44.6('15.11.30) → 33.75('16.1.7)
 - * WTI 일일가격(\$/Bbl): 41.7('15.11.30) → 33.27('16.1.7)

국제유가 동향

(단위: 달러/배럴, 전년동기대비 %)

구분	2014			2015					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누계
두바이유 (증가율)	105.3 (0.8)	88.1 (-17.0)	96.6 (-8.3)	56.3 (-43.7)	55.61 (-43.6)	47.76 (-53.1)	45.77 (-52.6)	45.82 (-47.2)	41.61 (-46.0)	34.92 (-25.3)	50.69 (-45.9)
Brent (증가율)	108.8 (0.8)	90.2 (-17.7)	99.5 (-8.5)	59.3 (-45.5)	56.76 (-47.5)	48.21 (-53.3)	48.54 (-50.8)	49.29 (-44.0)	45.93 (-42.3)	38.90 (-24.4)	53.60 (-45.9)
WTI (증가율)	100.8 (6.9)	92.9 (-5.2)	92.9 (-5.2)	53.3 (-47.1)	50.93 (-50.2)	42.89 (-55.3)	45.47 (-53.9)	46.29 (-51.1)	42.92 (-45.1)	37.33 (-22.0)	48.76 (-44.1)

주: ()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

자료원: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(Petronet)

□ 공급초과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저유가 지속

- (공급) 생산기술 향상, OPEC 증산, 이란 핵협상 타결로 공급량 증가
 - 북미지역 시추공(Drill rigs)이 크게 줄었지만, 프래킹(Fracking)* 기술 발전으로 셰일오일 생산량에는 큰 변화 없음
 - * 물, 화학제품, 모래 등을 혼합한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해서 바위를 파쇄해 석유와 가스를 분리해 내는 공법. 셰일가스 및 석유 채굴에 사용
 - * 미국 시추공(Drill rigs) 개수: 1,862('14.12)→698('15.12)
 - * 미국 공급(백만 b/d): 19.9('15.1분기)→19.6('15.2분기)→19.7('15.3분기)
 - OPEC 제 167차 정기총회('15.12.4)에서 시장 점유율 위해 150 b/d 증산 결정
 - * OPEC 생산량(백만 b/d): 37('15.1분기)→38.1('15.2분기)→38.3('15.3분기)
 -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('15.7.14)로 경제·금융제재 해제에 따른 원유증산 가능성이 저유가 부채질
 - * 이란 일일 원유생산량(백만 b/d): 2.8('15.12)→3.8('16.상반기)
- (수요) 원유 수요 소폭 증가하였으나, 공급이 수요를 초과
 -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과 러시아,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로 원유 수요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

세계 원유수급 동향

(단위: 백만 b/d)

구 분	2014				2015	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
원유공급(A)	92.1	92.6	93.5	94.3	94.9	96.4	96.6
OPEC	36.3	36.4	37	37	37	38.1	38.3
NON-OPEC	55.8	56.2	56.5	57.3	57.9	58.3	58.3
원유수요(B)	91.5	91.7	93	93.9	93.4	93.8	95.1
OECD	45.7	44.7	45.8	46.4	46.2	45.2	46.6
NON-OECD	45.8	47	47.2	47.5	47.2	48.6	48.5
초과공급(A-B)	0.6	0.9	0.5	0.4	1.5	1.6	1.5

자료원: 국제에너지기구 석유시장보고서(IEA OMR),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(Petronet)

- (달러 강세)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가격 하락
 - '15년 12월 16일 금리인상 발표 후, 17일 WTI 가격 34.95달러 (1.6% ↓), Brent 가격 37.3달러(0.9% ↓)로 거래 마감

□ 향후 전망

- (공급) 세계 원유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
 -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한 OPEC은 원유 생산을 전년 대비 약 0.7백만 b/d 내외로 증산 예정
- (수요) '16년 원유수요 상승폭은 전년대비 1.5% 내외로 제한적
 - '16년 원유수요는 전년보다 1.4백만 b/d 증가한 95.2백만 b/d이 될 것으로 전망(EIA, 미 에너지정보청)
 - * 미국을 제외한 유럽,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로 석유 소비 감소

세계 원유 공급량 전망

(단위: 백만 배럴/일)

	2013	2014	2015	2016
세계	90.9	93.3	95.5	95.8
미국	12.4	14.1	14.9	14.7
OPEC	36.4	36.4	37.4	38.1
NON-OPEC	54.4	56.9	58.1	57.8

'16년 원유 수급 전망



자료원: EIA, Short-Term Energy Outlook 2015.12

- (유가 반등요인) 생산원가를 밀도는 유가 형성에 따른 원유공급 감소 및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
 - 유가하락이 지속될 경우 북미 셰일오일, 오일샌드 등 생산원가가 높은 에너지 생산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
 - * Rystad Energy Research an Analysis, 북미 셰일 채굴 손익분기점을 68 (달러/배럴)로 발표 ('15.10.1)
 - 리비아, 이라크 IS 내전 심화, 러시아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원유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상승요인으로 작용

2

미국 셰일산업 저유가 대응전략

1. 미국 에너지 정책변화

□ 에너지 자립(Energy Independence) 강화

- 석유, 천연가스 등 전통에너지 중심에서 非전통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
 - 오바마 정부 1기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중동 및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 감소 추진
 - 오바마 정부 2기는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非전통에너지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추진
 - 셰일가스는 풍부한 매장량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수평시추, 수압파쇄 등 혁신적인 채굴 기술로 주요 非전통에너지원으로 급부상
- * 미국 전통 가스 매장은 318tcf¹⁾ 셰일가스는 665tcf

□ 청정에너지 에너지 경쟁력 강화 박차

- 청정에너지 기술력 강화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로 미래 성장 동력 시장 선점을 위해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계획
 - 탄소 포획, 격리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 투자
 - '20년까지 연방 정부 빌딩의 20%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
- * 에너지 효율 극대화의 일환으로 '20년까지 고효율 에너지 주택 600만채 건설 추진

□ 미국 환경보호청(EPA),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

-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세계 기후 변화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
 - '15년 8월 3일 청정발전계획(Clean Power Energy)을 발표, '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'05년 대비 32% 감축 목표
- * '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은 '15년 대비 300%, 태양열발전은 2,000% 증가 전망

1) Trillion Cubic feet

□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미국 내 원유 공급 및 해외 수출 확대

○ '16년 셰일오일 생산량은 355만 b/d 전년대비 8.9% 증가 전망

* 셰일오일 생산량(백만 b/d): 261('13) → 301('14) → 326('15) → 355('16)

○ '13년 10월 최초로 일일 국내 원유생산량이 수입량을 상회한 후 원유 자급 및 수출량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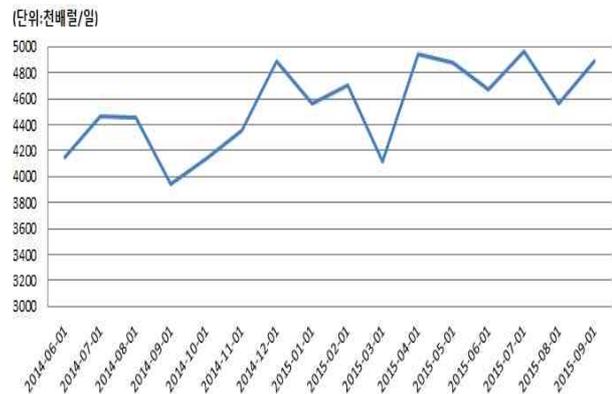
* 제한적 수출 허용: 알래스카 원유, 캘리포니아 중유, 환-알래스카(Trans-Alaska)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원유

미국 원유 생산 및 수입 추이



자료원: Bloomberg, 한국무역협회

미국 원유 수출 추이



자료원: EIA

□ '15년 12월 15일 미국 원유 수출 금지 해제

○ 미국 원유 수출 금지 해제로 미국 원유생산기업들 자유롭게 수출 가능

- 다수 전문가들은 셰일석유 생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* 미국 원유 생산량 930만 b/d로 2010년 547만 b/d 보다 70% 증산

○ 미국의 원유 수출 재제는 원유 재고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

- EIA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저유(貯油) 시설에 70% 이상의 원유 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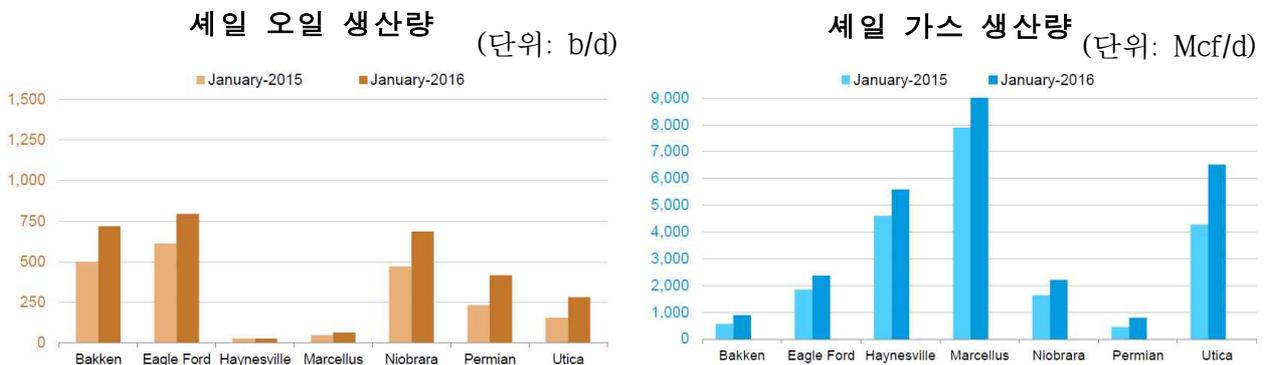
* 미국 최대의 저유 허브로 알려진 오클라호마주의 쿠싱은 90% 저유상태

* 미국 원유 재고량 현황(b/d): 373만('13) → 363만('14) → 460만('15.09)

2. 미국 셰일산업 개발동향

□ 대기업들은 셰일가스 생산 지속, 오래된 영세 유정들은 생산중단

- 주요 광구인 Eagle Ford, Bakken, Permian 등에서 생산 속도가 둔화될 뿐 셰일가스 생산 지속
 - Exxon Mobil은 텍사스주 Permian Basin의 셰일가스 개발 지역 48,000acre 인수 ('15.8)
- 오래된 영세유정인 스트리퍼 웰(Stripper Well)은 유가 40(달러/배럴)이하 시 채산성 악화로 생산 중단 예상



자료원: EIA, Drilling Productivity Report 2015.12

□ 기술혁신, 비용절감으로 제 2의 셰일혁명 선도

- 셰일가스 생산에 드는 굴착시간을 50% 단축하고 굴착거리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채굴관련 최적화 기술 구축
 - 'MIT Techonology Review'에 따르면 굴착기기의 품질 향상과 실시간 원격 조정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 향상 평가
 - * 미 셰일석유업계 전문가 스콧 셰필드(Scott Sheffield)에 따르면, 유가 40~50 (달러/배럴)에서도 투자이익 실현 가능
 - * EIA, '16년 WTI 가격 50.9 (달러/배럴) 전망
-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 가격 지속적 하락
 - '40년까지 셰일가스 생산량이 천연가스의 53%까지 증가 전망
 - * 셰일가스 생산량: 7,500cf²('05)→13.6tcf('15)→15.4tcf('20)→19.6tcf('40)
 - * 천연가스 가격(HenryHub기준): 4.71d/mmBtu('14.1)→4.12d/mmBtu('14.11)→2.99d/mmBtu('15.01)→2.09d/mmBtu('15.11)

2) Cubic feet

3. 글로벌 정유업계 저유가 대응전략

□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연기 및 축소

- 고비용, 대규모 프로젝트 연기 및 투자 축소
 - '15년 1~8월까지 약 2,200억 달러 석유·가스 투자 프로젝트 연기
 - * 분야별 프로젝트 연기: 심해유전(50%), 오일샌드(30%)
 - * '14년 유가 하락 이후 45개 프로젝트 연기 및 1,164개 시추공의 시추 중단
 - Chevron Corp, '16년 투자예산 226억 달러 책정하여 전년대비 24% 감축 발표
 - * Conoco Phillips: 77억 달러, 전년 대비 25% 감축('14년 대비 55%↓)
 - * Exxon Mobil: 340억 달러, '15년과 비슷함('14년 대비 13.2%↓)

□ 기업 인수합병(M&A) 열풍

- 저유가 시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기업간 인수 합병 추진
 - Schlumberger가 Cameron을 148억 달러에 조인트 벤처³⁾ 파트너 방식으로 인수('15.8)
 - Fluor사 Stork Holding B.V.을 7억 5,500만 달러에 인수('15.12.7)
 - * 지난해 11월 Halliburton이 Baker Hughes, Inc.를 364억 달러에 인수
- 오일 메이저 기업들 관련 회사 인수합병 자금 5,000억 달러 보유
 - Exxon Mobil은 3,200억 달러, Chevron은 650억 달러, BP는 530억 달러

□ 가스발전소 신·증설 활성화

- Duke, Entergy, American Electric Power 등 발전소 운영회사, 가스 발전소 신·증설 추진
 - '19년까지 가스 발전소 30개 신규 건설, NRG 등 4개 발전소 석탄에서 가스로 변경예정
 - EIA, 신·증설되는 발전용량의 75%를 가스발전으로 충당 전망
 - * 가스발전 비율 확대: 27%('13) → 31%('40)

3) 조인트벤처 (Joint Venture, JV)는 독립적 기업간 협력의 한 형태로, 사업자들이 각자의 자원을 통합하여 공통의 목적 추구

3 美 주요산업별 영향

1. 석유화학산업

□ 저렴한 원료를 바탕으로 가스 화학 관련 산업 부흥

- 미국 화학 산업 '15년 3.8%, '16년 3.1% 성장 전망⁴⁾
 - '15년 화학 산업 무역 수지는 341억 달러 흑자 달성, '20년 591억 달러 전망
 - 가격 경쟁력 낮은 나프타 설비 축소, 세일가스(에틸렌) 설비 투자 활발히 진행
 - '18년까지 연 1,254만 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 건설 추진
 - * 에틸렌 규모: 2,200만 톤('10) → 3,200만 톤('20)
- 가스 화학, 가스 발전 등 관련 플랜트 시장 투자 활발
 - '15년 3월까지 화학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억 달러로 '23년에는 930억 달러까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* 관련 사업 프로젝트(American Chemical Council): 97개('13) → 226개('15)

□ 화학 관련 플랜트 한국 기업 투자 진출 활발

- 롯데 케미칼, 미국 루이지애나에 에탄 크래커 및 MEG 공장신설 추진('15.12.17)
 - '16년 3월 기공식 후 '19년 초부터 연 10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예정
- SK건설, 미국 루이지애나에 초대형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 공사 수주('15.11.16)
 - 이번 수주는 미국 KBR과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연 800만 톤 규모 설비 건설 추진
 - * 전체 공사액 42억 5,000만 달러로 SK 건설 지분은 13억 600만 달러(30%)

4) Economist of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

2. 전력산업

□ 저렴한 가스 가격으로 가스·신재생 중심의 전력 발전으로 전환

- 미 셰일가스 개발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
 - 석탄발전소는 하향세, 가스발전소는 상향세로 '40년까지 가스발전량 비중은 31%까지 증가할 전망
 - * 셰일가스 공급량 증가로 가스 가격 2~3달러/mmBtu⁵⁾로 하향 안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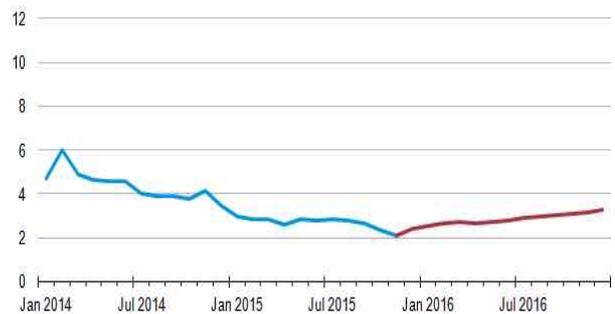
셰일가스 개발 전후의 미국 발전량

구분	2013	2040	증감률
원자력	19%	16%	-3%
석탄	39%	34%	-5%
신재생	13%	18%	5%
가스	27%	31%	4%

자료원: EIA, Annual Energy Outlook 2015

천연가스 가격 변화

(단위: 달러/mmBtu)



자료원: EIA, Short-Term Outlook 2015.12

3. 철강산업

□ 유가하락으로 채굴, 운송 등 업스트림(Upstream) 및 미드스트림(Midstream)분야* 기자재 수요 감소

* 업스트림: 원유와 천연가스를 시추·생산하는 단계 / 미드스트림: 천연가스를 운송·저장·도매하는 단계

- 신규 가스정 시추 등 생산설비에 필요한 채굴 기계류 수요 감소
 - 2015년 7월 가동 중단된 드릴쉽은 31개로 전년대비 3배나 감소
 - * 미국 시추장비 수입규모: 15억 달러('12)→11억 달러('13)→9억 달러('14)

□ 한국 기업 철강제품 수출 감소

- 저유가에 따른 석유메이저 및 석유 생산업체들의 석유 채취장비 수요 감소는 우리나라 철강제품 수출 감소와 직결
 - * 우리나라 철강수출현황(증감률/년): 304억 달러(4.8%/12)→291억 달러(-4.2%/13)→322억 달러(10.5%/14)→234억 달러(-1.7%/15)

5) Henry Hub 가격 기준 :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가격지표

4. 제조업

□ 생산비용 하락으로 제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

- 셰일가스 개발로 에틸렌, 메탄 등 가스 화학 관련 글로벌 기업 미국 러시
 - 현재까지 약 360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리쇼어링 하였고, 전자·컴퓨터 부품(16%)과 직물·의류 관련 제조업체(12.8%)가 주 업종
 - * Dow(미), 폐쇄된 3개 나프타 사용 공장을 가스 원료 사용하여 재가동
 - * Methanes(캐), 칠레 메탄 공장 2개를 루이지애나로 이전
- 제조업은 높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세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
 - 전기, 화학, 전자, 자동차, 종이 등 업종의 투자 증가율이 높음
 - * 미국 제조업, 금융위기로 위축되었지만 '11년부터 '14년까지 투자액 9% 증가로 반등

<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현황 >

- GE, 중국(온수기)/멕시코(냉장고, 세탁기, 식기세척기) 생산기지 켄터키로 이전
- Caterpillar, 일본(불도저, 굴삭기)/중국(굴삭기) 생산 공장 조지아 및 텍사스로 이전
- Whirlpool, 멕시코(상업용 세탁기) 생산 공장 오하이오로 이전
- New Balance, 중국(운동화) 생산 공장 콜로라도로 이전

5. 해양플랜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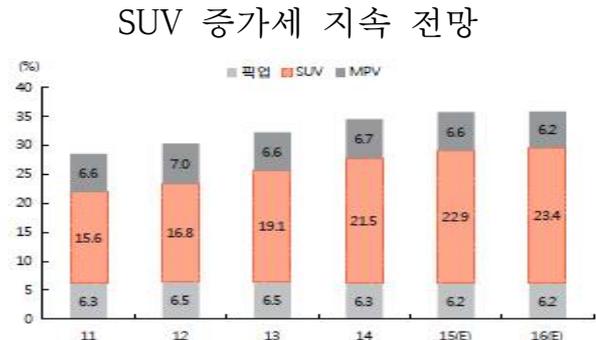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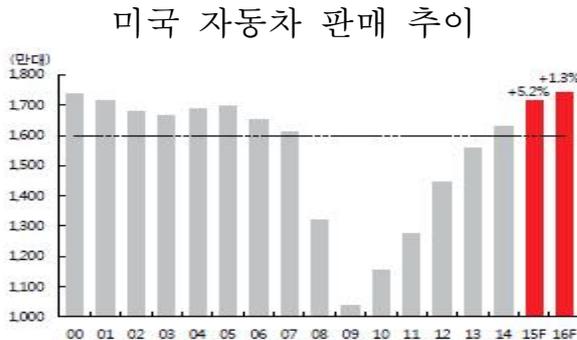
□ 유가하락으로 철퇴를 맞은 해양플랜트 시장, 단기 회복은 어려울 듯

-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어 해양플랜트의 추가 발주 보류 및 축소
 - 오일 메이저사들은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저유가로 해양부분 개발 투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
 - * WTI 60달러가 해양시장의 분기점이 될 전망
 - 향후 2~3년간 시추설비 가동률 및 발주 급감으로 해양플랜트 시장 흑한기 맞이할 것으로 우려
 - * 최근 1년간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예산 20~30% 삭감

5. 자동차 산업

□ 미국 자동차 시장 저유가로 트럭, SUV 시장 급성장

- '15년 소형 트럭시장 전년대비 13.5% 증가로 '01년 이후 최고 기록
- '15년 상반기 미국 내 SUV 판매는 전년 대비 60만여 대 증가
- * '15년 자동차 판매는 1,747만 대로, '16년 1.6% 증가한 약 2,026만 대 전망(AP통신)



자료원: KARI, 하이투자증권

□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압축천연가스(CNG) 자동차 보급 확대

-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가스 차량 가격 경쟁력 향상
 - * 천연가스 가격(달러/천큐빅피트): 3.84('13) → 4.52('14) → 2.75('15) → 2.96('16)
 - * 가스 자동차 모델 확대: 승용차 → SUV, 소형 트럭
-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부각
 - 미국, 일본 자동차 가스 차량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투자 증대
 - * GM은 '17년까지 약 50만대의 친환경차 생산 및 출시 계획
 - * 혼다자동차는 Civic 모델에 CNG 버전 꾸준히 생산 중
- 주정부 차원에서 CNG 자동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대 지원
 -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가스 충전소 건설 및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
 - * 미 연방 정부에서 CNG 충전소 설치비용의 50% 지원
 - * 자동차 연료로 '35년까지 현재 소비량의 6배 증가한 5.2tcf 사용 전망

4 시사점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

□ 유가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재 시장 성장

- '14년 미국 소비재 시장 규모는 2조 6,682억 달러로 총 GDP의 15.3%
 - 시장규모 : 25,989억 달러('13) → 26,682억 달러('14, 2.7% ↑)
 - 소비재 수입시장 규모는 5,594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23.5% 점유
 - * 소비재 수입: 5,349억 달러('13, 3.1% ↑) → 5,594억('14, 4.7% ↑) → 4,488억('15.09)
 - 의류·가정용품, 의료기기, 장난감, 보석류 등 혁신형 제품 인기
 - * 2015.09: 의류·가정용품(1,080억 달러, 6.4 ↑), 의료기기(807억 달러, 17.2% ↑), 장난감(297억 달러, 6.9% ↑)
- 한국 소비재 수출 시장 확대 전망
 - '14년 한국의 대미 소비재 수출 224억 달러로 4%대 점유율 유지
 - * 소비재 시장 점유율: 3.7%('13) → 4.0%('14) → 4.0%('15.09)
 - 한국의 주요 소비재 수출품으로 무선통신기기(52억 달러), 컴퓨터(10억 달러), 플라스틱제품(8.7억 달러)

미국의 소비재 수입 현황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13		2014		2015(9월)	
	금액	증감	금액	증감	금액	증감
총수입액	22,946	-0.4	23,741	3.5	17,187	-3.4
소비재	5,340	2.9	5,594	4.8	4,488	7.9
한국	199	10.8	224	12.9	180	11.5

자료원: Bureau of Economic Analysis, KITA

- 주요 경쟁국 동향
 - (중국) 산업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섬유, 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 경쟁 품목에서 한국 제품 위협 가능
 - (일본) 엔저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뿐만 아니라 최근 타결된 TPP 협정으로 일본 소비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
 - * 일본의 수출 자동차 부품은 TPP 발효 즉시 80% 관세 철폐 예정

□ 자동차부품, 의료기 및 의약품, 의류 시장 진출 유망

- '16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저유가에 따른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며 자동차 관련 부품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- '15년 상반기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38억 달러 기록
 - 자동차 부품 시장 '18년까지 연평균 2.7% 성장 전망
- 미국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은 '18년까지 연평균 4%의 성장 전망
 - '15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입규모 500억 달러로 수입 증가율 1위
- 미국 소비재 주요 제품으로 의류 관련 제품 수입은 약 480억 달러 규모
 - '15년 상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 1억 4,900만 달러로 2.3% 증가

<일반소비재> 미 수입 현황 및 7대 수입국 시장 점유율('15.10기준)

(단위: 백만 달러, 증가율 '14 대비)

제품군	수입액	증가율	China	Canada	Mexico	Japan	Germany	Korea	한국 증가율
Recorded media	780	25.0%	9.79%	10.07%	28.99%	8.94%	10.66%	0.71%	52%
Pleasure boats and motors	2,672	22.7%	7.40%	9.20%	6.92%	35.39%	2.74%	0.97%	131%
Artwork, antiques, stamps, etc.	11,251	20.5%	15.46%	1.11%	1.61%	1.99%	10.41%	0.58%	39%
Pharmaceutical preparations	90,361	18.1%	1.99%	4.85%	0.59%	1.27%	15.59%	0.12%	53%
Camping apparel and gear	9,759	14.5%	48.71%	0.68%	2.76%	0.33%	0.13%	0.33%	-4%
Furniture, household goods, etc.	27,706	11.9%	55.73%	5.75%	6.23%	0.30%	1.23%	0.57%	20%
Apparel, textiles, nonwool or cotton	41,478	10.7%	50.82%	0.98%	4.26%	0.06%	0.13%	0.35%	-1%
Cookware, cutlery, tools	7,899	9.8%	71.25%	1.29%	3.81%	0.96%	1.49%	0.77%	8%
Photo equipment	3,161	9.8%	40.47%	1.73%	0.05%	22.53%	2.96%	0.55%	-14%
Household appliances	22,430	8.0%	52.51%	3.00%	25.37%	1.22%	1.47%	6.25%	-11%
Toys, games, and sporting goods	30,607	7.8%	75.36%	1.40%	2.97%	0.99%	0.93%	0.47%	-5%
Cell phones and other household goods, n.e.c.	83,837	7.4%	66.77%	1.15%	4.68%	0.53%	1.34%	7.02%	9%
Apparel, household goods-nontextile	8,228	6.2%	61.00%	2.26%	2.31%	1.59%	1.01%	1.52%	19%
Numismatic coins	1,602	5.6%	5.20%	56.12%	0.85%	0.10%	1.10%	0.09%	-44%
Glassware, chinaware	2,058	5.4%	58.54%	0.73%	4.94%	1.67%	4.79%	0.50%	-13%
Books, printed matter	3,267	5.0%	45.25%	16.73%	6.74%	1.66%	2.60%	2.25%	-11%
Jewelry	11,553	4.6%	16.43%	0.65%	2.41%	8.32%	0.62%	0.20%	1%
Footwear	17,676	4.6%	70.19%	0.28%	2.44%	0.01%	0.43%	0.09%	-18%
Rugs	2,118	3.7%	22.99%	5.05%	0.87%	0.07%	0.85%	1.42%	-23%
Other consumer nondurables	12,471	3.5%	33.59%	21.32%	9.96%	3.44%	2.59%	1.32%	7%
Toiletries and cosmetics	8,533	0.8%	13.26%	16.64%	10.45%	2.00%	4.55%	1.83%	40%
Musical instruments	1,414	0.6%	41.68%	2.90%	8.16%	11.46%	5.18%	2.61%	-7%
Nursery stock, etc.	1,437	0.3%	2.16%	18.59%	2.99%	0.09%	0.08%	0.14%	20%
Apparel, household goods - cotton	39,536	-0.1%	30.55%	0.18%	4.70%	0.05%	0.02%	0.22%	-6%
Gem stones, other	3,053	-0.4%	39.94%	0.35%	0.27%	0.39%	1.42%	0.74%	2%
Televisions and video equipment	23,252	-1.3%	37.71%	0.94%	42.82%	3.69%	0.51%	1.24%	-5%
Gem diamonds	19,760	-3.1%	1.58%	1.00%	0.09%	0.04%	0.03%	0.00%	-100%
Motorcycles and parts	2,355	-3.8%	8.85%	7.05%	0.95%	40.18%	6.50%	1.16%	-7%
Apparel, household goods - wool	2,760	-6.3%	41.21%	4.36%	5.92%	0.23%	0.19%	0.13%	25%
Stereo equipment, etc	5,290	-7.3%	68.84%	0.49%	15.73%	0.98%	0.70%	0.41%	31%

자료원: U.S. Census 2015.10

□ 제조업 호황에 따른 부품·소재 수출 기회 확대

- 미국 내 제조업은 '15년 2.1% 성장했으며, '16년 3.4% 성장 전망
 -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미국 제조업 가격 경쟁력 상승, 미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,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이 주요 요인
-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부품·소재 수출기회 확대
 - 미국 내 글로벌 소싱, 신기술 개발을 위한 외부협력 수요 증가
 - * 미 정부, 제조업 혁신에 최우선 순위부여, '11-'15년 제조업 R&D 예산 35% 증액

□ LNG, LP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전망

- 세계 천연가스 및 LPG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LNG선과 LPG선의 신조선 발주는 양호한 수준 유지할 전망
 - 가스의 종류, 수요처, 용도가 확대되면서 가스선의 종류도 다양해질 전망
 - * '16년 가스선 수요전망: LNG선(약20척), VLEC(약5척), FSRU(약4척), LNG FPSO(1~2척), LPG선(약20척)
 - '15년 12월 18일 원유 수출 허용 세출 법안 통과로 셰일가스 수출 시 신규 LNG선 수요 증가 전망
 - * '15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55척('10~'12년 사이 88척 발주 대비 2배 ↑)

□ 해양플랜트 시장 회복 지연

- 미국의 주요 오일메이저, EPC기업들은 채산성 악화로 생산 시설 및 투자 위축 불가피
 - 신규 투자 어려운 상태로 채산성이 높은 유정을 중심으로 생산·저장 설비 일부 투자 예상
-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구매원가 절감을 위해 구매선(Supply chain) 다변화 시도
 -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우위 품목으로 미국 시장 진출 기회 공략 필요
 - * 글로벌 EPC 기업들 30% 원감 절감 목표, Supply chain 15% 절감 추진 중



작성자

- ◆ 달라스 무역관 안중익 과장
- ◆ 달라스 무역관 이성수
- ◆ 구미팀 권오승 과장



Global Market Report 16-004

저유가시대 美 세일산업 대응현황

발행인 | 김재홍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6년 1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06792)
전화 |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ISBN : 979-11-86926-89-5

Copyright © 2016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
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Global Market Report

저유가시대 美 세일산업 대응현황
